

Kang 3 인터뷰/Interview [한국 옮김 & English Translation ]

\*오디오에서 글로 옮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 의미를 잘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Important point of note: The Korean transcription is not exact; I have clarified some of the expressions and omitted repetitive parts. The essential message remains the same.

Person Code: Kang 3

Interviewer: I

I: 첫번째 질문은요, 6.25 당시에 몇살이었고 어디서 사셨어요?

I: My first question is: how old were you during the Korean War and where did you live?

Kang 3: 15 살이고 마포에서 살었어요.

Kang 3: I was 15 and I lived in Mapo.

I: 2 번째 질문은 제일 걱정되는게 무엇이었나요?

I: The second question is: what was your biggest concern?

Kang 3: 그 때요?

Kang 3: During then?

I: 네, 그 당시에.

I: Yes, then.

Kang 3: 그 당시에는 우선 먹고 사는게. 아버지가 외정때부터 청년회장을 하셨데요. 그래서 빨갱이, 아 빨갱이라네, 그 이북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잡으러 다녀서 아버지를 피신시키고 공덕동 고모네 집이, 방 하나가 온돌방이야, 그 다다미 일본식, 그 한장을 뜯고 숨어있었어요. 그래서 방문을 뚜두리면 자릿방 아래로 숨어있었지.

Kang 3: At that time, I worried primarily about food. My dad seemed to have worked as a president of youth corp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When the Reds, oh I mean northern people came in, we had to help my dad go on a refuge and hid in my aunt's in Gongduk. We hid under tatami mat.

I: 무서웠겠어요.

I: That must have been scary.

Kang 3: 그렇지, 그 때는 그냥 사는게 죽느냐 사느냐지.

Kang 3: That's right. It was the matter of life and death for us.

I: 세번째 질문은 그 당시 6.25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I: The third question is: how did you understand 6.25?

Kang 3: 그 이북서 쳐들어 왔다니까는. 그 때 당시 이박사였잖아요, 대통령이. 그 이렇게 쳐들어온다 말은 있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철통같이 다 해놨으니까 그 까지 사람들이 와도 괜찮다고 해서 국민들은 좀 안심을 했죠. 안심은 했는데 그날이 일요일날이야. 아침을 먹고 앉아

있는데 대포 소리가 나. 아버지가 밖을 보고 들어오는데 인민군들이 의정부에 있네요. 여기까지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 그날 저녁에 인민군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국군쪽에서는 방송하고 그러는게 지금 피난을 가라는거예요. 그 사람을 목을 쳐서 걸어 놓고 끔찍하게 죽인대요. 우리는 일정 시대에 많이 폭격을 보고 살았지만은, 우리나라끼리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영등포는 국군이 밀려 나가면서 포를 쏘고, 여기서는 또 인민군이 포를 쏘는거야. 우리가 그런 격전지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떨고 일제시대 그 마루 밑에 숨어서... 밤나저기로.. 제일 무서웠던 거는 유엔군... 국군이나 그랬겠어요... 검둥이나 그런 사람들이 15 살이니까 컷지.. 처녀들은 15 살이나 그런거 없어. 그 놈들이 잡아다가 그냥 어수룩한 곳에 가서... 그런데 인민군쪽에서는 사실 그런게 깨끗하더라고. 그랬다가는 지가 죽겠으니까. 겨울 피난에도 그런건 없더라고. 6.25 때를 제일 격전지에서 무섭게 살았던것 같애. 석달.. 6 월에 들어와가지고 7 월, 8 월, 9 월. 내일 모래가 추석인데 굶어야 할 판인데 국군이 들어와서는 미국군들이 양쌀을 쥐서 그걸로 밥을 해먹었지요.

**Kang 3:** They attacked us from the North. The president here was Dr. Rhee. There was a talk about invasion but he told us not to worry. He said that we are secure and we can fend off their attack, so most people felt comfortable. Attack happened on Sunday. We were eating breakfast when we heard artillery bombs. My dad went out and came in saying that inmins were already in Uijeongbu. We could hear the bomb from here. We heard on the radio from our soldiers that we needed to run. That inmins executed people terribly by cutting their necks. We saw a great deal of violence during the Occupation, but when we started to fight amongst ourselves, the fight was even more befuddling.

We lived in the middle of the conflict: from yeongdeungpo, our armies shot while on the other side inmins retaliated. What I most feared was hiding under the mat from the Occupation era... I was afraid of the UN armies too... I don't think our armies did it... only black people must have done it. I was 15 so I knew; they didn't care and took us to shady places... but inmin armies seemed to have been clear of this guilt. Perhaps because they knew they would be punished by such deeds. Living in-between the shooting zones was the scariest experience for me. For three months from June to September. Two days before Thanksgiving, we were starving but South Korean armies recovered the region and the US soldiers gave us some rice.

I: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요 그 당시에 어떤일을 하셨나요?

I: Thank you. My next question is: What did you do to during that time?

Kang 3: 그 당시에는 2학년인 학생이었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말이가 되어서 낮이면은 엄마가 냉수에다 간장을 따라서 간간하게 마시라고 줘. 저녁에 죽도 못 먹는 날도 있고. 쌀도 아니고 보리로 만들고... 그런걸로 연명을 하구. 인민군들이 정미석같은 걸로 쌀을 치러 가요. 할아버지들도 그 깃성같은걸 지고가. 그래서 내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인민군들이 따발총을 들고 서있는거예요. 그런데 어른 한명이 못 들어가게 해. 그 때는 몸바지 입고 몰골이 완전 거지지. 그래서 들어가서 그걸을 나도 갖고 가야지 식구들이 먹어야지 해서 들어갔어요. 가니까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그걸 끄내다가 쏘다 퍼. 그 다음에 벼, 쌀, 보리 다 뒤 섞여서 보다리 안에다 넣고 갔어.

그 때 인민군이 들어왔어. 수레탄을 던진다고. 그 때 한 청년이 나를 잡아쳐가지고 나무 판대기 집이야. 그리 나를 내보네. 그러고 보니까 암벽이더라고. 사람이 들어날만한 공간에 수리탄 터뜨리면 어떻게. 그 이가 줄로 나를 끌어올렸어요. 그 이가 나를 부잣집 쓰레기통 안에다 넣었어. 자기는 다른 쓰레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두리번 거리는게 느껴지더라고. 30분후에 떠나고. 나는 지금 그 청년 잊지 못해. 생명 위인이지.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는데 계속 주욱 인민군들이 지키고 있어. 여기서 걸어갈수 있냐고 해서 저녁때 걸어서 집에 도착했지. 그래서 6.25가 우리 국민들한테 참 처참한.. 너무 방비가 없어가지고는.

Kang 3: I was in Grade 2. I couldn't go to school. My mom would pour soy into a cold water to drink in the morning. At night we would be lucky if we could eat congee made out of not rice but barley... We survived on this. One time, I followed inmins to get rice. They were standing with their submachine guns and one soldier wouldn't allow me in, probably because I looked like a begger with my baggy pants. But I was determined to get rice for my family and entered. I mixed barley, rice, and wheat in my bag.

At that moment, inmin soldier entered. He said the bomb is coming. One man grabbed me, and pushing me through the hole in the wooden house, he shoved me into one of the garbage cans of the wealthy house. I heard him struggling into the next can. He told me to be still. I heard steps on the ground, a pause as some people looked about them, and after 30 minutes they left. I cannot forget that man even now: he saved my life. He took me out and walked past the road lined with inmin soldiers. He asked whether I could get home by myself after and I said yes. 6.25, for Korean citizens was such a dismal war... we had no strategies.

I: 혹시 주변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나요?

I: Were there any conflicts between the residents?

Kang 3: 그 때는 한 동네가 다 이웃으로 지냈지. 그런거는 없었지. 시골 같은데는 누가 찔러 죽이고 그런게 있었던것 같은데 서울은 없었어. 다 서로 지켜줄려고하고. 노력군이라고 있었어. 한집에서 한 사람씩 데리고.. 지금 동네가 주민센터가 그 때는 민촌이야 인민군이 들어왔을때에는. 한강에서 쌀 같은거를 추력으로 실어서, 거기가 여의도가 모래 사장이었어. 차가 다닐수 있는곳 까지 다 미는거야. 대포도 밀고... 우리 엄마 아프고 아빠는 숨어있고 그래서 내가 나갔지. 한번은 나왔는데 애니까 왜 어른이 아니고 니가 나왔냐 해서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중병에 걸렸다 해서 어린애가 나와서 들여보낼줄 알았더니 안 그러네. 저가 가서 샅 그런거 앉아서 지키고 있으래. 그걸 지키고 앉았다가 잠이 들었지. 그 때 깨웠겠지 안 깨웠겠어요? 거기 나룻배가 있는데 나 좀 구해 달라고 소리를 질리니까 할아버지가 나룻배를 타고 건너와 태워주시더라고. 6.25 추억이 많아.

**Kang 3: We lived like a neighbor. I heard that in countryside people stabbed one another but not in Seoul. We protected each other. At that time, this city looked like country. Yeouido was merely a place of piles of sand. They had to push their cars and bombs. My mom was sick and my dad hid so I went. They asked me why I came, seeing I was but a child, but when I told them that my dad died and my mom seriously ill they didn't say anything. They told me to guard, and I fell asleep. Now that I think back, they must have try to have awakened me but I slept through; I cried out for help and one old man rowed across in his boat and took me home. I have so many memories of 6.25.**

I: 그 다음 질문이요, 6.25 때 살아가는게 힘들었잖아. 어떠한 갈등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애를 들면 이념적 갈등, 주민들 갈등, 먹고 사는거에 갈등 이렇게요..?

I: Next question is: you had a hard life during 6.25; but of the conflicts, what most impacted you? For example ideology, residents, and food shortage...

Kang 3: 먹고 사는 거에 갈등이지 뭐, 주변에다 정신을 쓸데다 없어. 격전지대에 있었으니까 주변 사람이든 뭐든... 우리는 서울 사람이 되어서 10대 이상이 다 서울이야. 우리는 일가 친척도 없어서 친척이 다 서울이야. 피난갈 것도 없어. 그래서 방학때도 외가집 가는 거 보면 부러워. 고냥 앉아서 당했다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게 힘들었지. 맥아더 장군한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태국기를 흔들며 나두 울었다. 겨울 피난 때 너무 고생했어. 아는 집이 없으니까.

**Kang 3: Definitely food problems. I couldn't care about what was happening to others. I was living in-between shooting zones... We didn't even have relatives in the countryside and we couldn't take refuge. I envied people who could go. I was thankful to MacArthur; it was so difficult to live then because I couldn't eat. My dad wept as he**

waved the Korean flag and I joined him in his weeping. We especially suffered so during winter refuge. We didn't know anyone near us.

I: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요, 여기 왔다가 다른 군대 오잖아요. 그래서 어너 저 군대랑 있었다 해서 배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

I: When armies retreat and invade, was there any incident of accusation from one army of treachery?

Kang 3: 배반자라고 그러.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잡으려고 해서 붙들렸어 결국엔. 붙들려가지고 봉두천 어디까지 가셨데. 그래서 남한에서 반동했던 사람들, 다 뭐 했던 사람이야, 경찰이든.. 그래서 반동분자라 해서, 자기한테 해를 끼친거는 없잖아요, 여기서 살면서 좀 웃대거리 노릇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다 실어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이 쪽에서 붙들려가지 않으면 저쪽에서 붙들려 가는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붙들려가지고 또 조사가 나와. 마포 경찰소에서 조사를 받으려 다녔다니까. 다 받고 미신적인거는 강당에다 무릎을 꿇게 해서 죄인들이라고 앉혀놨더라고. 밥을 줄수가 있나. 정부에서도 줄 수가 없지. 그래서 6.25 라면 진정머리가 나.

Kang 3: They would call each other traitor. My dad finally got caught and he was carried all the way to Bongdoochun. He was the enemy because enemies were all police in South Korea... but we didn't do any direct harm to them. We only occupied upper positions. If you weren't captured then, you would be captured later. After questioning, he came out from Mapo Police office. He was kneeling like a prisoner, and I couldn't give him food. 6.25 sickens me still.

I: 이게 다섯가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I: These are all my five questions. Thank you so much!